

《신탁통치》의 간판밑에 조선에 대한 지배를 노린 미제의 책동

리 강 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안은 미국이 대조선정책으로 제기한것이며 미국은 그것을 테헤란회담과 알타이회담에서 거듭 주장하여왔습니다.》(《김일성전집》 제2권 496페이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노린 미제는 조선에서 《신탁통치》를 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들고나왔다. 미제는 조선사람은 《자치》할 능력이 없기때문에 군정통치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쏘, 미, 영, 중 4개국의 대표들로 조선의 립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행사하는 그 무슨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이 제안은 사실상 해방된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자는것이였다.

《신탁통치》안은 미제가 태평양전쟁시기 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들고나왔던 대조선침략론이다.

미제는 무엇보다먼저 태평양전쟁시기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신탁통치》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1866년 《서면》호의 조선침략으로부터 시작하여 미국은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언제한번 버린적이 없었다. 1870년대에 일본과의 공모결탁을 실현한것도 저들의 조선침략야망을 실현하는데 일본을 리용하는 속심에서 출발한것이였다. 1905년 《을사5조약》의 날조와 함께 감행된 일제의 조선강점을 지지하게 된것은 당시까지 극동에서 미국이 다른 렬강들을 제압하고 조선을 독차지할수 있는 군사, 경제적힘이 부족하였기때문이었다. 이로부터 미국은 일단 조선을 일제에게 먹이로 던져주고 저들은 장차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대로 나아갔다.

그러나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조선침략을 위하여 1870년대 미일제국주의자들사이에 형성되였던 제1차 공모결탁은 완전히 파탄되였다.

미제는 오래동안 저들이 꿈꾸어오던 대조선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차 일제가 패망한 후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흉악한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미제가 이러한 속심을 그대로 반영하여 들고나온것이 바로 《신탁통치》안이었다.

미제가 《신탁통치》안을 들고나온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제가 강점하였던 식민지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매우 복잡한 모순점을 안고있었으며 더우기 미국이 조선문제에 끼여들 그 어떤 명분도 전혀 없는 조건에서 장차 조선강점야망을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신탁통치》란 일제가 패망한 후에도 조선사람들이 자체로 독립국가를 창설하고 운영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 때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다른 나라들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것이였다. 즉 조선이 독립된 후에 그 정권을 조선사람이 아닌 미국과 그밖의 렬강들이 장악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휴 바이아스라는자는 자기의 책에서 전후 조선문제해결방도에 대하여 조선이 현단계에서 자치를 하는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미국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일본에 맡겨야 한다고 한것은 미국이 일본을 통하여 조선을 지배하겠다는 검은 속심을 내비친것이였다.

당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도 1942년 2월에 있는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식

민지를 반환해야 하며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 대하여 그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드러내놓았다.

1942년 8월 미국독점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잡지 《포춘》은 《조선인들이 자기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는 미국의 참가밑에 국제적인〈방조〉를 줄수 있는 과도기를 설정하는것이 합리적일것이다.》고 떠들었다.

그후 1943년 3월에 워싱턴에서는 당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 미국무장관 헐, 영국외무장 이튼이 참가한 가운데 만주와 대만, 월남, 라오스, 캄보쟈, 조선에 대한 전후 처리문제가 논의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루즈벨트는 전후에 만주와 대만은 중국에 반환하고 조선과 월남, 라오스, 캄보쟈는 《신탁통치》를 하되 조선은 중국(국민당중국)과 미국 그리고 그밖의 2개국 이 더 참가하여 《신탁통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들고나왔다.

미제는 국제관계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후 조선이 사회주의길로 나가는것을 막자면 통치제도를 서유럽나라들의 구미에 맞게 세워야 하는데 가장 적합한것이 바로 《신탁통치》라고 선전함으로써 저들의 대조선침략론을 합리화하였다.

한편 미제는 어용학자들과 어용평론가들을 내세워 조선사람들이 자체로 나라를 안전하게 그리고 잘 관리할수 있게 준비되지 못하였다고 선전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을 《국제보호》밑에 두며 그의 중요한 《보호자》는 필리핀에서 《경험》이 있는 미국이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침략야망을 드러내놓았다.

사실상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후 영국과 프랑스가 《국제연맹》의 《위임》이라는 명목으로 패전국인 도이칠란드와 튀르키예의 식민지들을 빼앗아내고 아시아, 아프

리카의 수많은 식민지나라들에서 실시한 《위임통치》를 그대로 본딴것이였다.

미제가 들고나온 《신탁통치》안은 그야말로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논리였다.

1905년 《을사5조약》이 날조된 이후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40여년동안이나 당한 불행과 고통은 실로 헤아릴수 없다.

바로 일제의 조선강점을 가장 적극적으로 뒤받침해주고 지지비호해준것은 다른아닌 미제였다. 1905년 7월 29일 《가쓰라-타프트비밀협약》을 통하여 미제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승인》해주었고 그후에도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모독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적극적으로 비호두둔해주었다.

미제는 우리 나라에서 일제의 가혹한 무단통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거족적인 3.1인민봉기가 일어나자 《일본의 내부문제》라느니 《조선사람들에게 해만 있고 리익이 없는 일》이라느니, 하면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모독하였다.

바로 이러한 미제가 조선사람들이 독립하는데 그 무슨 《방조》를 주겠다는것은 참으로 철면피하기 짝이 없는 황당한 꾀변이 아닐수 없었다.

이처럼 미제는 태평양전쟁시기에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신탁통치》안이라는것을 고안해냈다.

미제는 다음으로 저들의 침략적목적이 반영된 《신탁통치》안을 국제적으로 인정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미제가 저들뿐아니라 다른 령강들도 참가하는 《신탁통치》안을 들고나온것은 저들이 단독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는 경우 우리 인민들은 물론 다른 령강들로부터 그것이 배격당하리라는것을 타산한데 있었다.

이로부터 미제는 저들이 들고나온 《신

탁통치》안을 다른 열강들에게 인정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까히라회담에서 미제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라는 교활한 문구를 집어넣어 미국, 영국, 중국(장개석)의 이름으로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저들이 들고나온 《신탁통치》의 본질을 은폐하고 그것을 열강들의 공동의 《의사》인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었다. 특히 여기서 미제는 마치도 미국이 조선의 독립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표방하면서 그 무슨 큰 《은혜》라도 베푸는듯 한 인상을 주려고 하였다.

그후에도 미제는 1943년 11월부터 12월사이에 진행된 테헤란회담에서도 소련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저들이 들고나온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인정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회담에서 조선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한 쓰팔린의 발언에 대하여 《조선사람들이 독립을 얻으려면 약 40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떠벌이었다.

루즈벨트의 이 말은 조선사람들이 《후진적인 민족》이기때문에 직접 나라를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것인데 사실은 그 기간에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미국식《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미제는 저들의 이러한 흉심을 감추기 위하여 그것을 미국의 단독의사가 아니라 열강들의 공동의사인것처럼 위장하려고 하였던것이다.

1945년 4월 11일 알파회담에서 또다시 《신탁통치》안을 인정받기 위하여 미제는 《미국은 조선을 다수열강에 의한 후견통치를 실시하는 나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와 유사한 계획을 실현할것》이라고 하면서 그 기간을 20~30년으로 해야 한다고 들고나왔다.

이에 대하여 쓰팔린은 조선사람들이 자체로 자기에게 만족한 정부를 세울수 있다면 《신탁통치》가 필요없을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민주주의적인 자주독립국가를 세울데 대한 원칙적립장을 밝히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한 과도기를 설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한사코 우기면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발악해나섰다.

이러한 조건에서 쓰팔린은 《과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림시적인 후견제》를 실시하되 그것은 조선의 독립을 협력하고 원조하는 수단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루즈벨트는 쓰팔린의 의견을 공공연히 반대할 근거를 더이상 찾을수 없었고 결국 이에 겹으로나마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후견》기간을 설정하는데서도 루즈벨트는 필리핀에서의 《경험》을 실례로 들면서 필리핀의 《자치》를 위해 50년이 필요했는데 조선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0~30년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들고나왔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표현만 《후견통치》로 바뀌었을뿐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신탁통치》와 다를바없는것이였다.

루즈벨트가 쓰팔린과의 회담에서 조선문제를 상정시킨것은 그 어떤 합의를 보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저들이 주장하는 《신탁통치》가 국제적인 《합의》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인정시키려는데 있었다.

미제는 소련뿐아니라 다른 열강들도 끌어들이으로써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은폐시키려고 꾀하였다.

미제가 《신탁통치》안을 실현하는데 련합국에 속해있던 영국과 중국(장개석)을 끌어들이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책동을 합리화하려는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미제는 《신탁통치》안을 실현시킬수 없게 되자 철면피하게도 이 결정을 소련이 내

놓은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위한 결정인듯이 외곡날조하면서 남조선의 반동분자들을 사촉하여 《반탁운동》을 일으키려고 책동하였다.

이처럼 미제는 조선침략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탁통치》안이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오늘 미제는 지난날 《신탁통치》안을 들고나왔던것처럼 우리 공화국의 《핵문제》,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군사적으로 강점하기 위하여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지배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선군의 보검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것이다.